

2019년 8월 14일, 서귀포시 대천동(강정동) 강정마을경로당, 류진옥 조사.

조항식(남, 1941년생, 서귀포시 강정동)

- 서귀포시 강정동 출생으로 군복무 외에는 평생 강정동에서 살고 있다.

- 줄거리: 어느 바보가 죽을 쑈는데 죽이 다 되어 가면서 풀떡풀떡 하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인 풀떡을 함부로 부른다고 솥을 두드려 깨뜨려서 죽이 모두 쏟아져 버렸다.

[제보자] 어느 집안에 바보가 하나 있었는데 밥을 하라고 하니까 죽을 끓인 놈이 있어. 죽을 끓이니까 죽이 풀떡풀떡 하거든. 죽이 다 됴어 가니까 풀떡풀떡 하니까 이놈이 자기 아버지 이름이 풀떡이라.

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른다고 헤가지고 솥 이렇게 불 솥는 걸 부지땡이렌 헛주게. 부지땡이로 솥을 막 때리니까 솥이 깨져서 죽이 다 흐트러졌다 그런 말이 있고.

[조사자] 재미잇수다.

[제보자]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랬다고 하거든. 웃기는 소리지.

- 핵심어: 바보, 죽, 풀떡풀떡, 부지땡이(부지깽이), 솥(솥)